

# 국가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의 도서기호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Use of Book Numbers in the National Libraries and Regional Central Libraries in Korea

정연경(Yeon-Kyoung Chung)\*

장윤미(Yun-Mee Chang)\*\*

### 초 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2개 국가도서관과 9개 지역대표도서관, 서울시립정독도서관을 대상으로 담당 사서들의 도서기호에 대한 인식 및 문제점을 조사하고 각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기호의 현황을 분석하여 도서기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서기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서기호의 중복으로 인해 길어지는 도서기호의 길이로 나타났으며 도서기호 현황 분석을 통해 도서기호의 중복과 함께 직관성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용자 친화적이면서 간단하게 부여할 수 있는 저자명순과 연대순 방식을 조합한 새로운 도서기호법의 구성 요소를 제안하였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assigning book numbers and the perceptions of librarians who assign the book numbers at two National Libraries, nine Regional Central Libraries and Jeongdok Public Library in Korea. Based upon the analysis, a better method to assign book numbers for the libraries was suggested. The most serious problem was the length of the book numbers due to the duplication of book numbers and lack of intuitivenes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a user-oriented way of assigning book numbers based upon combining the name of the author and the year of the publication.

키워드: 도서기호법, 국가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수입순, 저자명순, 연대순  
book numbers, national libraries, regional central libraries, accession order,  
alphabetical order, chronological order

---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ykchung@ewha.ac.kr) (제1저자, 교신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생(ktcure@naver.com)

■ 논문접수일자: 2012년 7월 27일 ■ 최초심사일자: 2012년 7월 27일 ■ 게재확정일자: 2012년 9월 16일  
■ 정보관리학회지, 29(3), 79-97, 2012. [http://dx.doi.org/10.3743/KOSIM.2012.29.3.079]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급변하는 정보 기술 환경 속에서 도서관의 정보 조직과 정보 서비스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도서관 업무 중에서 인력과 시간이 가장 많이 필요한 기술 봉사(technical service)부서는 정보 조직의 효율성을 추구하여 도서관의 재정적 압박을 덜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외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장서를 소설류와 비소설류로 나누어 서가를 배치하고 비소설류에 대해서는 상세한 청구기호를 부여하는 대신, 소설류에 있어서는 간단한 분류기호와 함께 저자명을 주어서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들어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유용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인쇄 형태의 자료가 전자책 형태로도 더욱 많이 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물리적인 서가의 위치를 지정해주는 청구기호가 계속해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도서관에서 이용자가 서가로 접근해서 원하는 특정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청구기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청구기호는 별칭기호, 분류기호, 도서기호로 구성이 되는데, 별칭기호는 그 자료를 다른 곳에 비치하게 될 때 사용되는 기호, 분류기호는 그 자료의 주제를 알려주는 기호, 도서기호는 동일한 분류기호를 가진 자료들을 개별화시켜서 그 배열 순서를 정해주는 기호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의 자료에 대한 청구기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이 소모되며 분류기호처럼 연구 대상이 많이 되지 못한 도서 기호의 경우, 도서관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 그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조윤희(2004)는 도서관의 이용자가 도서관을 방문해서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서가의 접근이 필요하고 이 경우, 도서기호를 포함한 완벽한 청구기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도서관의 장서 관리와 도서관 정보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도서기호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도서기호의 기능과 필요성을 시대적으로 짚어보고,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기호의 적절성과 문제점에 관하여 실제 도서기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사서들의 견해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각 도서관에서 실제로 어떤 도서기호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 1.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도서기호법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도서기호의 정의, 기능, 불용론과 유용론에 관한 시대적 흐름을 짚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도서관의 도서기호법 사용 현황과 전문사서들의 도서기호법에 대한 문제점 및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지정한 9개의 지역대표도서관인 경기도 교하도서관, 광주광역시립도서관,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인천광역시미추홀도

서관, 전라남도립도서관, 전북도청도서관, 제주한라도서관, 그리고 서울시립도서관의 대표 역할을 수행해 온 서울시립정독도서관까지 추가하여 총 12개의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기호법의 현황과 도서기호에 대한 견해를 직접 방문하여 면담하거나 전자메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2년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12개 도서관에서 도서기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사서 12명으로부터 모두 응답을 받았으며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전화 통화로 내용을 수집 보완하였다. 그리고 한국출판인회의가 선정한 2011년, 2012년 상반기 베스트셀러 20종을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3가지 유형의 도서 3종을 추가 선택하여 12개 도서관의 도서기호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도서 기호를 부여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과, 고려해야 할 사항, 그리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 1.3 선행연구

국내에서 도서기호에 대한 관심이 가장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이다. 리재철(1958)은 도서기호법도 분류작업의 일부이며 같은 주제 내에서 같은 저자의 작품을 함께 유치하는 논리적인 분류 원리라고 하였고, 국내에 우리 실정에 어울리는 저자기호표가 없음을 지적하고 『동서저자기호표』를 제안하였다. 장일세(1964)는 C. A. Cutter의 저자기호표를 사용하는 것이 서양서의 경우 가장 합리적이고 간편하다는 실무자들의 의견과 높은 이용률을 감안하여 열거식 『동양서저자기호표』를 고안하였다. 이후 1980년대 들어

리재철(1985)은 도서기호법 중 저자기호법은 20세기 전반까지의 시대에 적합한 것이었으며, 급격한 학문의 발달과 문헌의 폭증으로 연대순 저자기호법이 더욱 합리적인 도서기호법이라고 하면서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을 제안하였다.

1990년대 이후 도서기호에 대한 연구는 기존 도서기호법의 장점, 단점 분석 및 이용 상의 보완 방법에 대한 제안이 주를 이루는데, 박준식(1991)은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의 특징과 장점, 단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저자기호를 구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저자기호표의 자동검색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김자후(1993)는 LCC(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에서 분석합성식 저자기호표인 Cutter표를 사용하는 예를 들면서 도서관에서 문헌에 분류기호 배정을 계속하는 한 도서기호는 필연적이라고 하고 합리적인 부차적 기호 사용지침을 마련하였다.

이양숙(1995)은 한국도서관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도서관을 제외한 공공도서관 206개관, 대학도서관 224개관, 특수·전문도서관 182개관, 학교도서관 147개관, 서울·부산지역 학교도서관모임 회원교 중 50개관을 합해 총 809개관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기호법의 현황을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사용상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도서기호법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 및 홍보, 청구기호의 중복 방지, 도서기호법의 부차적 기호에 대한 보완 등의 문제 해결 방법을 제안하였다.

조윤희(2004)는 대학도서관의 도서기호 사용 실태 및 대학도서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

는 도서기호의 적절성과 문제점에 관한 현직 사서들의 인식도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한 도서기호체계를 제안하였다. 조사 결과 전문사서들은 현행 도서기호법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도서기호의 중복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여겼으며, 현행 도서기호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도서기호법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 체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의 경우, 도서기호의 기능 및 의의를 다룬 문헌들이 많았는데, Barden(1937)은 도서기호의 기능 및 역사에 대하여 정리하고 실제 도서기호 부여 방법을 설명하였다. 그는 도서기호를 생략할 경우, 개별 도서를 파악하기 위한 기호가 부족해지고, 도서 배가에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서가상의 도서를 찾기 어려워지고, 도서 대출시 더욱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서, 특히 대규모 도서관, 학술적 도서관에서는 개정이나 저자에 따라 구별되는 도서기호 시스템에 필요하다고 하였다.

Dewey(1957)는 도서기호가 각 분류번호 내에서 도서의 배열을 돕고, 도서관의 다른 책들과 구별되는 청구기호를 제공하며, 서가에서 특정 도서를 찾는 일을 간소화하고, 도서를 서가에 재배치하는 업무를 단순화하며, 도서의 완전한 식별 방법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Comaromi(1981)는 도서기호의 의미와 기능, 역사에 대하여 소개하고 Cutter,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의 실제 활용법을 제시하였다. 그는 청구기호의 기능을 서가상의 책 배열을 위한 순서를 제공하고, 특정 도서를 위한 고유의 위치를 부여하여 해당 위치에 보관, 반납될 수 있도록

하며, 도서의 간단한 식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Satija(2007)는 국립인도도서관이 인도인 이름의 특징을 고려하여 '국립도서관표(National Library Table)'란 이름의 저자 기호 체계를 개발하였는데 이 표는 종교와 지역을 아우르는 이름을 포괄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립인도도서관 외부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성과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상과 같이 국내에서 도서기호에 대한 관심은 1950년대 말엽부터 시작되어 상당히 많은 도서기호법이 개발되고 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의 개발, 도서기호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다양한 도서기호에 대한 비교 연구가 이루어졌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 국내 도서관의 도서기호법 사용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문제점을 도출하는 연구가 처음 시도되었고 2000년대 중반에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기호법의 사용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도서기호에 대한 연구 논문이 국내에서는 1건에 불과하였으며 국외의 경우도 2000년 이후에 2건 밖에 없어 도서기호에 대한 관심이 전보다 매우 줄어든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축소된 도서기호에 대한 관심이 도서관에서의 도서기호 부여 불용론을 뒷받침하고 도서기호 기능의 약화를 뜻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현재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기호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도서기호에 대한 인식,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새롭게 시도되어야 할 시점이다.

## 2. 도서관과 도서기호법

### 2.1 도서기호법의 정의와 기능

도서기호법이란 동일한 분류기호를 가진 자료들을 개별화시키기 위해 그 안에서 다음 단계의 배열기준이 되는 요소를 기호화하는 법칙을 말한다. 이러한 도서기호법에 대한 정의와 기능을 역사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Barden(1937)은 새로운 도서를 동일 분류번호 내 다른 도서들과의 관계 속에서 적절한 위치에 종속시키기 위해 부여하는 기호를 도서기호로 정의하면서, 도서기호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관적이라는 점에서 분류번호와 다르다고 하였다. 또한 도서기호의 필요성에 대하여 서가에 순서대로 도서를 배열할 수 있고, 개별 도서에 간략하고 정확한 청구기호를 부여하며, 특정 도서의 서가상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용자들에게 도서 대출을 위한 기호를 제공하고, 반납된 도서를 서가에 쉽게 배열하여, 장서점검 시 신속한 도서 식별을 돕는다고 하였다.

Ranganathan(1967)은 도서기호법이 최종적으로 동일한 분류 번호를 가지고 있는 도서를 각각 개별화하여 그들 간의 우선적인 배열 순서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리재철(1970)은 도서의 배가위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서가상의 도서의 배열과 검색, 되찾음과 점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Satija(1990)는 도서기호가 주어진 분류번호 안에서 도서의 정확한 위치를 고정시키고, 쉽고 정확하게 도서의 위치를 정해 서가에 배열되도록 하고, 도서의 기록 요소로서 대출 반납에 도

움을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도서관 자료의 장서점검과 장서파악에 유용하고, 동일한 분류번호 내에서 특정 저자에 관한 또는 특정 저자가 쓴 모든 저서를 함께 모아준다고 하였다.

이후 Satija와 Comaromi(1992)는 도서기호가 저자, 서명, 언어, 출판연도, 형태사항과 같은 문헌 속성의 하나 혹은 그 조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좀 더 확장된 개념적 정의를 내렸다.

김성원(1997)은 도서기호에 대하여 동일 분류항목 내에서의 개별화 기능과 분류의 연속 또는 보조적 분류의 기능을 강조하였으며, 조윤희(2004)는 도서기호가 분류기호와 구별되어 문헌의 서가 위치를 지정해주는 독자적인 장치로서 동일한 분류기호 안에서 문헌을 개별화하여 서가상의 유일한 위치를 지정하고 서가배열을 용이하게 하며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전체 문헌의 이용과 검색의 효율성을 높여 장서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였다.

### 2.2 도서기호법의 종류

도서기호법의 종류는 다양하나 도서기호를 매기는 대상을 기준으로 크게 나누어보면 수입순 도서기호법, 저자명순 도서기호법, 연대순 도서기호법으로 나눌 수 있다. 수입순 도서기호법은 입수되는 순서대로 저자나 발행연도와는 무관하게 서기목록만을 보고 일련번호를 주는 방법이다. 아무런 조직적인 의미가 없고 동일 분류 내에서의 동일저자의 저서라도 수서시일에 따라 분산되며 시간서와 구간서의 순서도 무질서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가제식의 서기목록을 작성할 수 있고, 도서의 배열이나 점검을 간단하고 빠르게 할 수 있으며, 신착도서를 위해

서 기착도서의 이동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개별 도서에 고유의 기호를 주기가 용이하며 배열에 장소를 덜 차지한다는 것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동일저자 아래 저작을 함께 모아주거나 학문의 발달과정을 살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저자명순 도서기호법은 저자의 성명 또는 기본 기입에서 기본기호를 삼아 문자 또는 문자와 숫자를 혼합하여 기호로 만드는 것으로 분석합성식과 열거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석합성식 도서기호법은 저자기호를 매길 때 기본기호 대상어의 첫 문자와 그에 해당하는 기호를 합성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리재철, 1982)과 『LC 저자기호법』이 있다. 열거식 도서기호법으로는 빈도가 많은 저자명을 일일이 열거하여 여기에 순차적으로 숫자를 붙인 것으로 『Cutter-Sanborn 3숫자 저자기호표』(Cutter, 1969), 장일세 『동양서저자기호표』(장일세, 1964), 정필모 『한국문헌기호표』(정필모, 1974), 이춘희 『동서저자기호표』(이춘희, 1960), 고재창 저자기호법(고재창, 1954), Merrill 저자기호법(Merrill, 1912) 등이 있다.

분석합성식과 열거식 도서기호법 외에 『엘로드(Elrod) 저자기호표』가 있는데, 1955년 연세대학교도서관 부관장으로 부임하였던 Elrod (J. McRee Elrod)에 의해 고안되어 채용된 것으로 동양서에 대한 저자명(기입어)의 첫 석자와 서명의 첫 자를 그대로 도서기호로 채기하는 방식이다(이창수, 1986). 연대순 도서기호법은 동일 분류 내에서 자료가 발행된 연도를 문자와 숫자로 기호화하여 도서기호로 사용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리재철 『새 연대순 도서기

호법』(리재철, 1986)이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기호법은 동일한 주제 아래 동일한 저자의 저작물이 한데 모이지 않고 흩어지게 되지만, 장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일한 주제의 학문 발달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창안되었다.

### 2.3 도서기호의 불용론과 유용론

도서기호가 불필요하다는 견해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견해가 논쟁이 되었던 적이 있는데 이를 시대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일 먼저 Barden은 개가제 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이 직접 서가에 가서 브라우징을 통해 원하는 책을 접하는 상황에서는 도서의 위치가 정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정확하게 서가에 배열하고 특정한 도서의 청구에 필요한 도서기호의 가치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도서기호를 생략하게 되면 각각의 도서를 구별하는 개별적인 기호가 부족해지고, 도서를 서가에 배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모되며, 서가상에서 개별적인 도서를 찾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도서대출에서 대출연장과 같은 절차는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고 하였다(Satija, 1993).

이후 Phillips(1961)는 저자기호표의 가치가 과대평가되었으며, 실제로는 저자기호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근거들을 요약하였다. 첫째, 저자기호표는 알파벳순 배열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목적을 위한 매우 복잡한 도구이고, 둘째, 평균적인 저자기호는 별도의 기호를 추가하지 않아도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복잡하다. 셋째, 도서관에서 자세

한 분류를 할수록 저자기호의 필요성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넷째, 같은 성을 지닌 저자는 배열이 하나로 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저자기호표는 저자의 이름을 드러내 주지 않고, 여섯째, 책 등에 나타나는 저자의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서가에 배열할 수 있으며, 일곱째, 소설, 전기 등과 같은 주제 분야에서는 저자 성의 첫 번째 세 글자를 표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이용자들에게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도록 요청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저자기호 불필요론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여기에 Comaromi(1981)도 모든 도서관이 반드시 도서기호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실제로 미국과 영국의 많은 대규모 도서관들이 도서기호를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Mann(1943)은 도서기호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도서기호를 없애는 정책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을 되돌려 보내는 것일 뿐이라고 하였고, 리재철(1970) 역시 도서기호 불필요론이 기호화에 드는 작업상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해 나온 방편이지만 결국 그 수고를 서가배열을 하는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Comaromi(1981)는 도서기호의 불용론과 함께 장서 규모가 증가할수록 도서기호의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하였다. 만약 도서관들이 동일 저자의 특정 주제 혹은 특정 형식의 저작, 저작의 다양한 판들과 번역본, 저작의 개별 작품이나 전집, 북 포켓이나 책 등의 정보에 따른 재구분 없이 전기 혹은 문학 비평과 같은 범주를 위한 특정 주제에 대한 저작을 모

으고자 한다면, 도서기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도서기호 없이 도서를 찾을 수는 있으나 이용자들이 동일한 분류기호 안에 밀집해 있는 도서를 탐색해야할 때, 책등 또는 다른 정보를 이용해야 하므로 불편하고 검색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도서기호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인 절약은 탐색단계에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책을 찾기 위해 들어가는 확장된 탐색을 통해 그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리재철(1985)은 자료의 소재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검색한 자료를 직접 신속하게 획득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의한 검색이 아무리 발달되고 보급되어도 도서관의 이용자가 서가로 접근해서 자료를 직접 찾는 경우, 도서기호법의 필요성은 존속할 것이라고 보았다.

박준식(1991)도 1921년에 수행된 도서기호의 생략에 따른 연구에서 서가 배열 시간이 절약되었으나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를 찾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반납도서를 서가에 재배열하는 시간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도서기호법 사용을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도서기호법의 필요성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였다.

Satija(1992)도 도서기호는 동일한 분류기호 내에서 도서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하고 배열함으로써 대출 반납 및 도서의 재배열을 용이하게 해주며 동일 분류 기호 아래 동일 저자의 모든 저작과 다양한 판, 복사본, 관련 주제의 자료, 특정 저자와 관련된 모든 저서를 집중시켜 논리적으로 도서를 서가상에 배열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도서기호는 반드시 필요하다 주장하였다.

이에 조윤희(2004)는 1970년대 이전에는 도서기호의 불용론이 제기되었으나 도서관의 장서 규모가 증가되고 개가제 운영으로 인한 문헌의 정확한 배열순서 유지의 필요성이 생겨나면서 도서기호를 통해서 이용자의 이용과 장서관리의 효율성 도모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장서수의 증가로 인한 기존 도서기호법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도서기호법의 수정, 확장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도서기호의 불용론보다는 장서가 커지면서 도서 기호의 중복 현상이 나타나고 도서기호의 길이는 길어지며 도서기호를 부여하는데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이 증가한다는 문제가 도서관으로 하여금 도서기호법의 수정이나 확장을 고려하게 하는 상황을 알 수 있다.

### 3. 국가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의 도서기호법 사용현황

현재 우리나라 국가도서관과 지역대표공공도서관의 도서기호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 9개관, 서울특별시립정독도서관의 도서정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서기호법 사용현황과 도서 기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실제 도서기호를 비교 분석하였다. 공공도서관 10개관 중 9개관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선정한 지역대표도서관이고, 서울특별시립정독도서관은 최근까지 실질적인 서울시립공공도서관의 대표 역할을 담당해 왔으므로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 3.1 도서기호법 사용 현황 분석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지역대표공공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기호법은 <표 1>과 같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은 동서와 양서 모두 연대별수입순기호법을 사용하고, 지역대표공공도서관은 동서와 양서 모두 수입순기호법을 사용하는 1개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저자기호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연대별수입순기호법은 분류기호에 수입연도를 의미하는 숫자와 일련번호를 함께 표기하는 방식인데, 여기에서 일련번호는 해당 분류기호에 특정 수입연도의 도서가 배정된 순서를 의미한다. 동서의 경우, 저자기호법을 사용하는 공공도서관 중 6개관이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을 사용하고 있었고, 장일세 「동양서저자기호표」, 국립중앙도서관 「동양서저자기호표」, 「엘로드(Elrod) 저자기호표」를 각각 1개관이 사용하고 있었다. 양서의 경우, 저자기호법을 사용하는 9개 공공도서관 중 대부분인 7개관이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LC 저자기호법」, 「엘로드(Elrod) 저자기호표」를 사용하는 공공도서관이 각각 1개관이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은 동서와 양서 모두 동일한 도서기호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역대표공공도서관 중 수입순기호법을 사용하는 1개관과 「엘로드(Elrod) 저자기호표」를 사용하는 1개관이 동서와 양서에 동일한 도서기호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기호법을 조사한 이양숙(1995), 대학도서관의 도서기호법을 연구한 조윤희(2004)



〈표 1〉 도서기호법 사용현황

도서기호법		국가도서관(%)	지역의 대표 공공도서관(%)	
동서 도서기호법	수입순기호법	수입순기호법	1(10.0)	
		연대별수입순기호법	2(100.0)	
	저자기호법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		6(60.0)
		장일세 동양서저자기호표		1(10.0)
		국립중앙도서관 동양서저자기호표		1(10.0)
		엘로드(Elrod) 저자기호표		1(10.0)
계	2(100.0)	10(100.0)		
양서 도서기호법	수입순기호법	수입순기호법	1(10.0)	
		연대별수입순기호법	2(100.0)	
	저자기호법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		7(70.0)
		LC 저자기호법		1(10.0)
		엘로드(Elrod) 저자기호표		1(10.0)
		계	2(100.0)	10(100.0)

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데, 동서 도서기호법으로는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이, 양서 도서기호법으로는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도서기호법의 사용은 한번 결정하면 변경이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현재까지 도서기호법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교하도서관이 동서와 양서 모두에 적용되는 도서기호법을 변경한 경험이 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동서에 적용되는 도서기호법으로 1945년부터 1983년까지 주제별수입순기호법을, 2000년까지 『국립중앙도서관 동양서저자기호표』를 사용하였는데, 청구기호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연대별수입순기호법으로 변경하였다. 양서의 경우 설립 이후 사용하던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를 2012년 서가 공간 확보 및 동서에 적용

하는 도서기호법과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연대별수입순기호법으로 전환하였다.

국회도서관은 이전까지 사용하던 이춘희 『동서저자기호표』와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를 2009년 연대별수입순기호법으로 전환하였는데, 도서기호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도서기호법을 수입순기호법으로 변경하는 추세를 따르고자 서가 브라우저보다 정확한 도서 검색을 선호하는 이용자 행동 패턴을 반영하여 변경하였다고 하였다.

교하도서관의 경우 2008년 개관을 앞두고 선구입되어 있던 도서 중 동서는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 양서는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를 사용하여 정리되어 있었으나, 위탁을 받은 이후 도서기호법을 동서와 양서 모두 『엘로드(Elrod) 저자기호표』로 변경하였고, 당시 도서의 저자 이름이 청구기호에 표기되면 이용자의 도서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변경의 큰 이유가 되었다고 하였다.

도서기호법을 변경한 도서관을 대상으로 변경 이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은 동서의 경우 청구기호의 중복 문제를 가장 큰 이유라고 응답하였고, 수입순 기호법 적용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변경하였다는 응답도 있었다. 양서의 도서기호법을 변경한 이유로는 동서 도서기호법과의 일치, 서가 공간 확보, 수입순 기호법 적용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고, 공공도서관 1개관은 이용자가 도서기호를 기억하고 인식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변경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2〉는 이양숙(1995)의 연구에서 나타난 도서기호법 변경 이유와 비교한 결과이다. 이양숙(1995)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동서의 경우 가장 많이 지적한 도서기호법의 문제점은 청구기호의 중복이었으나, 분류법 변경으로 인한 변경은 전무하였고 대신 동서와 양서의 저자기호법을 일치시키고, 최근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 새롭게 나타난 변경 원인이었다. 도서기호법 자체의 문제와 이용자의 편리, 효율적 장서관리도 변경 원인이었는데, 이용자의 편

리를 위해 변경한 것은 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인으로 도서기호가 이용자들이 서가에서 자료를 찾는 데 용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도서기호 부여에 들어가는 업무 부담이나 비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도서기호 불용론의 시작이었던 요소가 근본적인 변경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로 이루어진 전화인터뷰 결과, 업무 부담은 도서기호 변경의 주된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서기호법과 관련하여 불편한 점이 있는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전체 12개 도서관 중 지역대표공공도서관 4개관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들 도서관은 구체적인 불편사항으로 모두 도서기호의 중복과 그로 인해 길어지는 청구기호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도서기호의 중복 문제는 이양숙(1995)과 조윤희(2004)의 연구에서도 가장 크게 부각되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및 지역대표공공도서관의 경우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도서기호의 중복 문제는

〈표 2〉 도서기호법 변경 이유 비교

변경원인	이양숙 (1995)		정연경, 장윤미 (2012)		변경원인	이양숙 (1995)		정연경, 장윤미 (2012)	
	동서	양서	동서	양서		동서	양서	동서	양서
담당사서의 진출입	4	5			분류법의 변경	9	12		
도서관 전산화	2	2			서고의 개가제 변환	1	1		
도서관의 재개관	4	3			도서관의 업무개선	3	4		
도서기호 매김의 간편성	4	1			이용자의 편리	4	2	1	1
도서기호법 자체 문제	9	5			최근 추세에 부응			1	1
동서·양서 저자기호법의 일치				1	최신 자료의 구분	2	1		
청구기호의 중복	10	4	2		학문의 발달과정 확인	1	1		
동일저자·동일주제 유취	4				효율적인 장서 관리	6	4		1
계	37	20	2	1	계	26	25	2	3

과거부터 계속되어 온 문제점으로 파악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실제 도서기호법을 변경한 도서관의 변경 이유와 현재 도서기호법 사용 시 불편한 점이 모두 청구기호 중복 문제로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청구기호 중복 문제의 해결이 도서기호법 개선에 있어 시급한 당면 과제임은 분명하다.

### 3.2 도서기호 비교 분석

실제 도서기호 부여 실태는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과 지역대표공공도서관 10개관을 대상으로 한국출판인회의가 선정한 2011년도 베스트셀러 20위, 2012년도 상반기 베스트셀러(2012년 6월 20일 기준) 20위권 내 도서의 도서기호를 검색하였다. 12개 도서관이 모두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대상으로 비교하기 위해 대부분의 도서관이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베스트셀러 도서를 대상으로 하였고, 12개 도서관의 소장 여부를 조사

하여 최종 20종의 도서를 선정하였는데, 해당 도서는 <표 3>과 같다.

<표 3>의 도서는 특성에 따라 공저자의 저서, 관청 유무, 다권본, 번역서로 구분되는데, 먼저 일반적인 도서의 도서기호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수입순기호법을 사용하는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3개관의 도서기호는 이용자에게 특정 숫자를 보여주고 있었으나 정보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 3개관을 제외한 도서관들은 자관이 채택한 저자기호법 중 기호부여방법과 같은 기본사항은 따르되 부차적 기호 등은 자관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실제 도서기호를 살펴본 결과, 8개 도서관은 저자의 성 첫 글자, 혹은 초성을 표기하고, 적용하고 있는 저자기호법에 따라 숫자를 병기한 후, 서명의 초성, 혹은 초성과 중성, 혹은 초성에 임의의 모음을 부가하였다. 그런데 『엘로드(Elrod) 저자기호표』를 사용하는 교하도서관의 경우 저자의 성과 이름을 모두 기입하고 필요한 경우 서명의 초성을

<표 3> 도서기호 사례비교 선정도서

구분	서명	저자	구분	서명	저자
비문학	10년 후 미래	대니얼 엘트먼	문학	김제동이 만나러 갑니다	김제동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낮익은 타인들의 도시	최인호
	문재인의 운명	문재인		바보 빅터	호아킴 데 포사다, 레이먼드 조
	생각 버리기 연습	코이케 류노스케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넬레 노이하우스
	시골의사 박경철의 자기혁명	박경철		브리다	파울로 코엘료
	십자군이야기1	시오노 나나미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은교	박범신
	엄마 수업	법륜		종이 여자	기욤 뫼소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	리처드 J. 라이더, 데이비드 A. 사피로		카산드라의 겨울. 1	베르나르 베르베르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해를 품은 달. 1	정은필		

〈표 4〉 일반도서관의 도서기호 비교

구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 장하준	김제동이 만 나라 갑니다 / 김제동	낮익은 타인들의 도시 / 최인호	아프니까 청춘이다 / 김난도	엄마 수업 / 법륜	엄마를 부탁해 / 신경숙	은교 / 박범신
국립중앙도서관	10-5	11-150	11-73	11-2	11-114	9-104	10-24
국회도서관	10-33	11-81	11-316	11-24	11-103	ㅅ563ㅇ	10-293
부산시민도서관	148	4398	347	2222	695	10079	10746
광주광역시립도서관	장91ㄱ	김73ㄱ	최69ㄴ	김211ㅇ	법237ㅇ	신14ㅇ	박43ㅇ
대구중앙도서관	장91ㄱ	김73ㄱ	최69ㄴ	김211ㅇ	법237ㅇ	신14ㅇ	박43ㅇ
대전한밭도서관	장569ㄱ	김814ㄱ	최871노	김326ㅇ	법144ㅇ	신541어	박354야
인천미추홀도서관	장91ㄱ	김73ㄱ	최69ㄴ	김211ㅇ	법237ㅇ	신14	박43ㅇ
전라남도립도서관	장91ㄱ	김73ㄱ	최69ㄴ	김211ㅇ	법237ㅇ	신14ㅇ	박43ㅇ
전북도청도서관	장91ㄱ	김738ㄱ	최692ㄴ	김2112ㅇ	법23792ㅇ	신146ㅇ	박434ㅇ
정독도서관	ㅅ218ㄱ	ㄱ922ㄱ	ㅅ622낮	ㄱ686ㅇ	ㅂ754ㅇ	ㅅ784어	ㅂ268ㅇ
제주한라도서관	장92ㄱ	김74ㄱ	최68낮	김192ㅇ	법296ㅇ	신14어	박44ㅇ
교하도서관	장하준	김제동ㄱ	최인호ㄴ	김난도ㅇ	법륜ㅇ	신경숙ㅇ	박범신ㅇ

병기하고 있어, 도서기호를 통해 직관적으로 저자의 이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공저자의 저서에 대한 도서기호를 살펴보았는데, 저자가 2명인 도서의 도서기호를 비교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저자기호법을 사용하고 있는 9개 도서관은 모두 자관이 택한 저자기호법에 따라 첫 번째 저자의 성, 혹은 첫 자음을 한글음으로 우선 표기하고 있었고 교하

도서관은 서양 저자의 이름을 영어 알파벳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서양 저자의 도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6〉과 같다. 서양저자의 도서 5권의 도서기호를 비교한 결과, 저자의 성 첫 글자 혹은 초성을 표기하고 저자기호법에 따른 번호를 병기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교하도서관의 경우, 저자의 성 알파벳 처음 세 글자와 이름의 첫 글

〈표 5〉 저자가 2명인 도서의 도서기호 비교

구분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 / 리처드 J. 라이더 데이비드 A. 샤피로 지음, 김정홍 옮김	바보 빅터 / 호야킴 데 포사다, 레이먼드 조 지음, 한국경제신문사 편집부 옮김	구분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 / 리처드 J. 라이더 데이비드 A. 샤피로 지음, 김정홍 옮김	바보 빅터 / 호야킴 데 포사다, 레이먼드 조 지음, 한국경제신문사 편집부 옮김
국립중앙도서관	11-109	11-13	인천미추홀도서관	라69ㅇ김	포51ㄴ한
국회도서관	11-19	11-47	전라남도립도서관	라69ㅇ	포51ㄴ
부산시민도서관	2297	829	전북도청도서관	라69ㅇ	포51ㄴ
광주광역시립도서관	라69ㅇ	포51ㄴ	정독도서관	ㄷ958ㅇ	포45ㄴ
대구중앙도서관	라69ㅇ	포51ㄴ	제주한라도서관	라68인	포52ㄴ
대전한밭도서관	라196ㅇ	포592ㄴ	교하도서관	LeiRr한	PosJv한

〈표 6〉 서양저자 도서관의 도서관기호 비교

구분	10년 후 미래 / 대니얼 엘트먼 지음, 고영태 옮김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 벨레 노이하우스 지음, 김진아 옮김	브리다 / 파올로 코엘료 지음, 권미선 옮김	종이 여자 / 기욤 뫼소 지음, 전미연 옮김	정의란 무엇인가 / 마이클 샌델 지음, 이창신 옮김
국립중앙도서관	11-5	11-6	10-11	10-143	10-1
국회도서관	11-10	11-13	10-2	11-24	10-2
부산시민도서관	209	1052	47	1734	389
광주광역시립도서관	엘838스	노69브	코63브	뫼55스	샌223스
대구중앙도서관	엘838스(오배정) → 엘838스	노69브	코63브	뫼55스	샌223스
대전한밭도서관	엘251스(오배정) → 엘756스	노766브	코387브	뫼675스	샌578스
인천미추홀도서관	엘838스고	노69브김	코63브권	뫼55스전	샌223스이
전라남도립도서관	엘838스(오배정) → 엘838스	노69브	파67브(오배정) → 코63브	뫼55스	샌223스
전북도청도서관	엘838스	노69브	코6383브	뫼55스	샌22383스
정독도서관	오246스	노72배	코532브	뫼752스	스194스
제주한라도서관	엘838스(오배정) → 엘838스	노68브	코64브	뫼55중	샌24스
교하도서관	AltDo한	NeuNs한	CoePbr한	MusGf한	SanMj한

자를 병기하고 다음으로 서명 첫 글자 혹은 두 글자를 기재한 후, 번역서의 의미로 ‘한’이라는 글자를 표기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동양서에 적용하는 『엘로드(Elrod) 저자기호표』를 서양 번역서에 응용·적용한 것인데, 저자의 성을 한글음으로 적는 것에 비해 기호의 의미 파악이 용이하지 않았다.

〈표 7〉은 일서 번역본의 도서관기호를 비교한

것이다. 저자기호법을 사용하는 9개 도서관 중 8개관은 모두 저자명의 일본식 발음을 기준으로 저자기호를 채기한 반면, 교하도서관은 『엘로드(Elrod) 저자기호표』에 따라 저자명의 한자음 중 첫 세 글자를 사용하였다.

서명에 관칭이 있는 도서에 대해 저자기호법을 사용하는 9개관의 도서관기호를 비교한 결과, 〈표 8〉과 같이 서명을 활용한 부차적 기호를 부

〈표 7〉 일본저자 도서관의 도서관기호 비교

구분	생각 버리기 연습 / 코이케 류노스케 지음, 유윤한 옮김	구분	생각 버리기 연습 / 코이케 류노스케 지음, 유윤한 옮김
국립중앙도서관	10-39	인천미추홀도서관	코69스유
국회도서관	10-5	전라남도립도서관	코69스
부산시민도서관	424	전북도청도서관	코69스
광주광역시립도서관	코69스	정독도서관	코574스
대구중앙도서관	코69스	제주한라도서관	코68스
대전한밭도서관	코412스	교하도서관	소지용스한

〈표 8〉 관칭이 있는 도서의 도서기호 비교

구분	문재인의 운명 / 문재인	시골의사 박경철의 자기혁명 / 박경철	구분	문재인의 운명 / 문재인	시골의사 박경철의 자기혁명 / 박경철
국립중앙도서관	11-24	11-128	인천미추홀도서관	문72○	박14스
국회도서관	11-12	11-169	전라남도립도서관	문72□	박14스
부산시민도서관	608	88	전북도청도서관	문72○	박146스
광주광역시립도서관	문72○	박14스	정독도서관	□738○	비178스
대구중앙도서관	문72○	박14스	제주한라도서관	문73운	박14자
대전한밭도서관	문623○	박179스	교하도서관	문재인○	박경철스

〈표 9〉 다권본의 도서기호 비교

구분	십자군 이야기. 1 / 시오노 나나미	카산드라의 거울. 1 / 베르나르 베르베르	해를 품은 달. 1 / 정은필
국립중앙도서관	11-2-1	863-10-130-1	11-1222-1
국회도서관	11-1 (v.1)	843-10-105 (v.1)	11-761 (v.1)
부산시민도서관	5-1	863-1716-1	484-1
광주광역시립도서관	시65스-1	863-베238ㄱ-1	정68ㅎ-1
대구중앙도서관	시65스-1	863-베238ㄱ-1	정68ㅎ-1
대전한밭도서관	시444스 vol_1	863-베198ㄱ vol_1	정392ㅎvol_1
인천미추홀도서관	시65시송-1	863-베238ㄱ입-1	정68ㅎ-1
전라남도립도서관	시65스-1	863-베238ㄱ-1	정68ㅎ-1
전북도청도서관	시65스-1	863-베238ㄱ-1	정682ㅎ-1
정독도서관	스772스-1	863-비774각-1	스456ㅎ-1
제주한라도서관	시65스-v.1	863-베297ㄱ-v.1	정67ㅎ-v.1
교하도서관	염야철스한-1	863-Werbm한-1	정은필ㅎ-1

여할 때 관칭의 첫 글자를 사용하는 도서관과 이를 제외한 서명의 첫 글자를 사용하는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는 다권본에 해당하는 도서의 도서기호를 비교한 결과로 도서기호법에 상관없이 모든 도서관이 도서의 권호수를 표기하고 있어, 해당 도서와 연결성이 있는 또 다른 도서의 존재가 있음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 내용을 종합할 때, 수입순기호법보다 저자기호법, 특히 『엘로드(Elrod) 저자기호법』를 응용, 활용하는 것이 기호의 의미 파악에 있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 4. 도서기호 개선방안

청구기호는 이용자가 서가로 접근해서 자료를 손쉽게 찾을 수 있으며 도서관에서도 서가 배열을 짧은 시간에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의 위치를 개별화하고 정해주기 위한 것이다. 청구기호 중에서 별치기호는 별도의 장소나 서가에 배치하는 기호로 쉽게 구분이 되고 분류기호는 자료의 주제를 알게 해주며 도서기호야말로 해당 도서의 저자명이나 서명, 연대 등으로 자료의 개별화는 물론 이용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흔히 우리가 자료를 찾을 때, 누구의 무슨 책, 언제 나온 것인지가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기호의 기본 구성 요소는 저자명, 서명, 연대로 가는 것이 타당하여 그 결과, 저자명순 도서기호법이나 연대순 도서기호법이 나오게 되었다. 그렇다면 저자명과 서명, 연대를 모두 반영하면서 도서기호를 간단히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동서의 경우, 저자명을 한글로 모두 적어주고 나서 서명의 첫 글자와 해당 권·호수를 써주고 필요에 따라 출판연도를 부기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양서의 경우, 저자 성의 처음 3글자(첫 자는 대문자, 나머지 두자는 소문자), 저자 이름의 첫 글자(대문자), 서명의 첫 글자(소문자), 해당 권·호수를 써주고 필요에 따라 출판연도를 부기한다. 특히 인명은 전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명을 한글화한 것을 바탕으로 하면 표기가 계속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어로 쓰는

원칙을 고수하는 편이 낫다. 그렇게 한다면 앞에서 지적한 도서기호의 중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저자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일일이 저자기호표를 찾아서 저자명에 해당하는 번호를 찾는 번거로움도 줄고 도서기호 부여 작업이 매우 간단하게 된다. 이러한 원칙을 크게 구분하여 정리해 보면 <표 10>과 같다.

이러한 방식과 가장 유사한 도서기호법이 『엘로드(Elrod) 저자기호법』인데, 김연경(1987)은 이 방식이 저자기호 부여 시 참고해야 하는 표 없이도 사용 가능하고 단순하며 문자와 숫자가 혼합되어 있는 저자기호법보다 오기율이 적어 업무상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용자 입장에서도 도서기호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어 열람 및 대출 시 분류번호와 저자만 알고 있어도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표 10> 엘로드 저자기호법을 수정 적용한 도서기호법

구분		적용방법	예시
저자, 공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 번째 저자 성명 기재 후, 서명의 첫 글자 기재한다.</li> <li>• 공저자가 있으면, 서명의 첫 글자 뒤에 이음표(-)로 연결하고 두 번째 저자의 성을 기재한다.</li> </ul>	엄마를 부탁해/신경숙 저 -> 신경숙 엄 문헌분류론/김포옥, 박진희 공저 -> 김포옥 문-박
번역서	동양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자의 한자음을 기재 후, 서명의 첫 글자를 기재하고 이음표(-)로 연결 후 번역자의 성을 기재한다.</li> </ul>	생각 버리기 연습/코이케 류노스케 지음; 유윤한 옮김 -> 소지용 생-유
	서양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자의 성 처음 3자를 원어로 기재 후, 저자의 이름 첫 자를 원어 대문자로 기재하고 서명의 첫 자를 소문자로 기재 후, 이음표(-)로 연결하고 번역자의 성을 기재한다.</li> </ul>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 지음 ; 이창신 옮김 -> SanMj-이
전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전자 성명 기재 후, 저자의 성을 기재한다.</li> </ul>	안중근 평전/김삼웅 지음 -> 안중근 김
서명 기본표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제의 첫 세 글자 기재 후, 편집자명의 첫 자를 기재한다.</li> </ul>	브레인 영한사전/아테나 편집부 -> 브레인 아
단체명 기본표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명의 첫 세 글자 기재 후, 서명의 첫 자를 기재한다.</li> </ul>	(경상북도)이야기 여행/한국여행작가협회 -> 한국여 이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 도서기호의 중복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동일한 분류기호 아래 도서기호의 중복이 생기는 경우, 저자명 방식과 연대순 방식의 원칙 중 각각의 도서관에서 선호하는 세부 원칙을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5. 결론

도서기호는 동일 분류기호 아래에 있는 많은 자료를 개별화시키는 기능을 하며 때로는 특정 항목에서 보조적인 분류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도서기호는 청구기호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다양한 목적으로 서가에 접근하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이용자 친화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도서기호의 기능과 역할, 더 나아가 도서기호의 불용론과 유용론을 선행 연구로 살펴보고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9개 지역대표 공공도서관, 서울시립정독도서관을 중심으로 담당자들의 도서기호에 대한 인식과 도서기호 작성 시 문제점 등을 조사하고 이들 도서관의 도서기호 사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은 동서와 양서 모두 연대별수입순기호법을 사용하고 있었고, 지역대표공공도서관은 동서와 양서 모두 수입순기호법을 사용하는 1개관을 제외하고 모두 저자기호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동서의 경우, 공공도서관 중 6개관이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을 사용하고 있었고, 장일세 『동양서저자기호표』, 국립중앙도서관 『동양서저자기호표』, 엘로드(Elrod) 저자기호표』를 각각 1개관

이 사용하고 있었다. 양서의 경우, 저자기호법을 사용하는 9개 공공도서관 중 대부분인 7개관이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LC 저자기호법』, 『엘로드(Elrod) 저자기호표』를 사용하는 공공도서관이 각각 1개관이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은 모두 동서와 양서의 도서기호법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서의 경우 청구기호의 중복 문제가 가장 큰 변경 이유였고, 도서기호법 자체의 문제와 이용자의 자료 탐색 행태의 변화에 따라 저자기호법의 유용성이 줄어든 것도 다른 이유였다. 양서의 도서기호법을 변경한 이유로는 동서 도서기호법과의 일치, 서가 공간 확보, 수입순 기호법 적용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도서기호법을 변경한 공공도서관 1개관은 이용자가 도서기호를 기억하고 쉽게 인식하기 위해서였다.

사용하고 있는 도서기호법의 불편한 점에 관해서는 전체 12개 도서관 중 지역대표공공도서관 4개관이 모두 도서기호의 중복과 그로 인해 길어지는 청구기호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결국 도서기호는 청구기호에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도서기호법 자체가 갖는 한계로 인해서 도서기호의 중복을 피해 도서기호가 길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3개의 동일한 자료에 대한 도서기호를 비교해 본 결과, 가장 쉽게 해당 도서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 것은 저자명을 그대로 가져와서 써준 것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저자기호표나 연대순 기호 부여에 관해 알아야만 이용자들이 쉽게 자료를 파악할 수 있게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새롭게 도서기호법을 선택하여 사용해야하는 신규 도서관의 경우, 이용자의 입장에서 가장 쉽게 자료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저자명식과 연대순식을 혼합하여 쓰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좀 더 자세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사례

를 바탕으로 세부 원칙을 개발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이용자 친화적이면서도 도서기호의 간략화, 단순화를 추구하고 각각의 자료를 개별화하는 부차적 분류 기능을 확고히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성원 (1997).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1(2), 79-93.
- 김연경 (1987). 圖書館學問題集: 客觀式 演習. 서울: 경인문화사.
- 김자후 (1993). 도서기호의 부차적 기호법에 관한 소고.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보, 5, 281-300.
- 김포옥, 백항기 (2011). 문헌분류론 (개정판). 고양: 조은글터.
- 리재철 (1958). 동서저자기호법의 연구. 도협월보, 7.8, 2-26.
- 리재철 (1970). 구조론에 입각한 한국 저자기호표의 연구. 도서관학, 1, 1-58.
- 리재철 (1982). 한글순도서기호법. 서울: 아세아문화사.
- 리재철 (1985).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의 연구. 도서관학, 12, 7-37.
- 리재철 (1986).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 서울: 아세아문화사.
- 박준식 (1991). 영미 저자기호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이양숙 (1995).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기호법에 관한 실태조사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8, 23-70.
- 이창수 (1986). 한국 도서기호의 발전과정 분석. 계명연구논총, 4, 199-220.
- 이춘희 (1960). 동서저자기호표. 서울: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 장일세 (1964). 東洋書著者記號表. 서울: 新書閣.
- 정필모 (1974). 한국문헌기호표. 서울: 중앙대학교 도서관학회.
- 조윤희 (2004). 도서기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1(4), 233-249.
- Barden, B. R. (1937). Book numbers: A manual for students with a basic code of rules. Chicago: ALA.
- Comaromi, J. P. (1981). Book numbers: A historical study and practical guide to their use. Littleton: Libraries Unlimited.

- Cutter, C. A. (1969). Cutter-Sanborn Three Figure Author Table. Swanson-Swift revision. Chicopee: H. R. Hunting Co.
- Dewey, H. (1957). An introduction to library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Wisconsin: Capital Press.
- Elrod, J. M. (1958). The arrangement of printed materials in a library. 人文科學, 2, 161-179.
- Mann, M. (1943).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of books (2nd ed). Chicago: ALA.
- Phillips, W. H. (1961). A primer of book classification (5th ed). London: Association of Assistant Librarians.
- Ranganathan, S. R. (1967).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 (3rd ed). London: Asia Pub. House.
- Satija, M. P. (1990). Book number and call number. I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 45. New York: Marcel Dekker, pp. 18-45.
- Satija, M. P., & Comaromi, J. (1992). Beyond classification: Book numbers with special reference to chronological book number. New Delhi: Ess.
- Satija, M. P. (1993). Colon Classification 7th edition: Some perspectives. New Delhi: Sterling Publishers Pvt. Ltd.
- Satija, M. P. (2007). Book numbers in India with special references to the author table for Indian names designed and us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India. Knowledge Organization, 34(1), 34-40.

<p>•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p>
--

- Chang, Il-Se (1964). Oriental Book Author Table. Seoul: Shinseogak.
- Cho, Yoon-Hee (2004). The survey of actual condition on improvement and point at issue of currently book numbers in Korean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1(4), 233-249.
- Jeong, Pil-Mo (1974). Korean Literature Author Table. Seoul: Library Science Society of Chung-Ang University.
- Kim, Ja-Hoo (1993). A study on secondary notation of book number. Journal of Chun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 281-300.
- Kim, Po-Ok, & Paik, Hang-Ki (2011). Literature classification (2nd ed). Goyang: Joeungeulteo.
- Kim, Sung-won (1997). A study on New Chronological Book Number.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1(2), 79-93.
- Kim, Yun-Kyung (1987). Library science workbook: Practice for multiple-choice test. Seoul:

Kyeongin Publishing.

- Lee, Chang-Soo (1986). A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book numbers. Keimyung Research Journal, 4, 199-220.
- Lee, Choon-Hee (1960). Oriental Book Author Table. Seoul: Sungkyunkwan University library.
- Lee, Jai-Chul (1958). A study on Oriental Book Author Table. KLA journal, 7.8, 2-26.
- Lee, Jai-Chul (1970). Author notations based on the structure of the author table for Korean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Science Society, 1, 1-58.
- Lee, Jai-Chul (1982). Korean Alphabetical Order Book Number System. Seoul: Asea Publishing.
- Lee, Jai-Chul (1985). A study of New Chronological Book Number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Science Society, 12, 7-37.
- Lee, Jai-Chul (1986). New Chronological Book Numbers. Seoul: Asea Publishing.
- Lee, Yang-Sook (1995). A study on the present book numbers used in Korean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8, 23-70.
- Park, Joon-Shik (1991). Design of new author tab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